

☞ 타인에 의해 상처 받은 감정과 양심을 회복하는 길

삼하13:1-22

2달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 시리즈 설교, 지난 주 다윗의 양심

동굴의 다윗, 왕국의 다윗, 일이 잘되고 사람이 성공하면 양심이 무더질 가능성이 크다. 무더져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양심, 나단의 대언의 말씀으로 양심을 회복함

하나님의 말씀, 쓴 소리, 진실한 충고

신약 시대 교회의 필요성, 좋은 성도들과의 교제, 쓴 소리를 잘 듣는 사람

지난 주 다윗의 경우, 본인의 욕심, 간음, 살인, 양심이 무더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폭력,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가정환경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마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은 < >, 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삶이 망가지고 양심이 상처 입은 경우는 어떻게 치유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암논과 다말 이야기

지난주 삼하11-12, 오늘은 삼하 13장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를 통해 여러 아들, 큰아들 암논(이스라엘 출신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삼하3:3)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1), 문제 암논의 짝사랑, 그의 간교한 친구 요나답(3), 그의 질문(4), 그의 조언(5), 암논의 실행(6-7), 다말이 왕의 명대로 시행함(8)

암논이 다말을 겁탈함(13-14), 그리고는 그녀를 미워하여 내쫓음(15-17)

다말의 비참한 상태(19), 압살롬의 말(20), 다말의 처량한 신세(20), 황폐하게 됨, 황무지가 됨
다윗은 이 일에 대해 큰 책망을 할 수 없음(21),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말을 생각해 보자.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예쁜 어머니를 통해 예쁘게 태어났다는 것을 빼고는 이 모든 불행이 그녀의 이복 오빠 암논과 그의 간교한 친구 요나답 때문에 발생함

그런데 그녀는 평생토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처량한 신세로 지냄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사사기 11-12장, 입다의 딸, 아버지의 맹세로 인해 평생 처녀로 살게 됨

인간인 우리는 다 죄책감을 지닌 채 살고 있다.

다말의 경우에는 죄책감의 대부분이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남 때문에 생긴 것이다.
루처의 말: 아이들을 학대하는 집이 많다. 슈퍼마켓에 갔는데 들리는 이야기, “이 바보야, 이 새끼야, 이 년아, 그런 것도 몰라, 나가 죽어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대충이 보는 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

신문에 종종 나는 기사, 어떤 유명인이 자기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다. 자기 아내를 폭행하였다. 이런 것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그 여자 친구나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어젯밤에는 서울 시내에서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 여자들이 학대를 당했을까? 수치를 당했을까? 요즘은 아내에게 매를 맞는 남편들도 있다고 한다.

부모가 알코올, 마약, 포르노에 중독된 가정도 있다. 동성애자 부모를 둔 아이들도 있다.

이런 것 말고도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

어떤 부부, 아내가 남편에게 콘서트 장에 가자고 조름, 그런데 타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남편이 즉사함. 그 뒤 아내는 13년 동안 거의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아감

루처가 하고 싶은 말: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이 좋은 의도로 한 일로 인해 생긴 사고에 대해 평생토록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조그만 딸을 둔 엄마, 건널목에서 아이의 딸 “엄마 차가 안 오니 길을 건널 게요.” “그러렴.” 그런데 엄마가 제대로 다 살펴보지 못해서 이 딸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어 죽었다. 그 어머니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자기 딸이 죽음. 평생 안고 가야할 죄책, 이런 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로 평생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다말과 같이 원치 않는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닥친 비극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비극이 닥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어 가지 일이 흔히 일어난다.

1. 자존감을 상실한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이것이 심하면 자살 충동이 생기고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루처의 말: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학대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리고 자기는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끊어지지 않는 학대의 사슬, 학대당하는 많은 아이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학대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됨, 환경 순응 또 학대를 가하는 당사자는 교묘하게 상대를 다룬다. “당신이 그렇게 나쁜 아내가 아니라면 내가 왜 내가 당신을 때리겠느냐?” “이 일을 다른 데 가서 말하면 당신 가족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일은 당신 책임이 된다” 등등의 위협

이런 희생자들, 양심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은 양심을 회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다. 영혼 구원,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의 뜻이다.

2. 강박감을 갖는다.

이런 일로 상처를 받으면 많은 경우 강박감을 갖는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누로 손을 씻고 목욕을 한다. 자존감 상실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아이들 같은 경우 자학 증세를 보인다. 몸에 상처를 낸다. 나는 살 가치가 없으니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죄기도 한다.

완전주의자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자기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

그 결과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 만족이 없다.

타인의 기대와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애를 쓰는데 이것이 결국 강박감으로 작용한다.

심하면 편집증(paranoia) 혹은 과대망상증(망상 장애)으로 발전한다. 편집증은 대상에게 적의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것을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이다.

편집증 환자들은 불안 속에서 대상을 의심하고 망상을 통해 의심의 증거를 찾는다. 어떤 대상이든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 방식대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치료자까지도 못 믿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자기가 영웅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가 되는 이상한 세상, 가상의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서 살게 된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3. 사람은 양심과 감정에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생을 망치기 전에 치료받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

다말의 경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다말은 재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19) 평생을 처량하게 지냈다(20).

사61을 보자. 여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묘사되어 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눅4:18-19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신다.

61:1-2, 메시아 사역의 목적, 재를 뒤집어쓰고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2-3).

메시아 사역을 통해 애곡하는 자들의 수치가 제거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상처 역시 제거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애곡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대체하실 수 있다.

그래서 6-7절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 된다(벧전2:9). 수치 대신 보상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

그 결과 10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두 종류의 수치를 다 아신다: 나로 인한 것, 타인으로 인한 것(즉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한 것, 과거로 인한 것)

우리의 수치가 어떤 종류이든, 얼마나 크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보다 더 크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지난주 설교, 다윗의 회개, 죄들의 용서

어떤 분의 댓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개독이다.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니.”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 죄를 덮고도 남는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내 힘으로, 눈물로 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핵심은 대신 속죄이다. 죄 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들의 값을 치르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신다.

그러므로 죄들의 용서는 우리의 구원자, 용서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신뢰함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용서가 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자기 힘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 역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짓느냐에 의해 죄인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태 죄인이므로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짓는다. 이 죄들의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죄들의 용서,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히12:1-2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떨시하셨다(하찮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다(갈3:13).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이런 저주와 수치를 떨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셨을 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도 지셨다.

즉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부담과 수치도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수치와 죄책감의 힘이 와르르 무너진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 존재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의무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먼저 부모가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모든 수치감, 죄책감,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가져다 놓아야 한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개를 들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제거하셔서 우리의 과거는 과거가 되고 말았음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후5:17, 새로운 창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였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엡4:32)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과 화해하고 지내야 한다.

우리를 어렵게 하던 부모가 이미 죽은 경우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당사자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화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분노,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한 여인은 이 일을 위해 기차를 타고 다른 주로 떠났다. 자기 어머니 산소가 있는 데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상처받은 모든 것, 분노, 수치를 쏟아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몸을 파는 창녀였다. 그래서 감수성 많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수치감과 좌절을 겪었다. 그날 그녀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내가 겪은 이 모든 수치와 아픔을 이제 아버지께 놓고 갑니다. 저는 더 이상 이집을 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과거의 악몽, 특히 타인으로 인한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에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과거가 다시 떠오를 것이고 그때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아뢰고 그 감정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

땅에서 나뭇구는 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자. 길으로 보기에 흙이 묻어 지저분하다. 그러나 그 만 원짜리나 조폐공사에 막 인쇄한 깨끗한 만 원짜리나 값어치는 같다.

둘 다 만 원의 값어치를 갖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의해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죄의 구덩이, 수치감의 구덩이에 빠졌을 수 있다. 사람들 보기에 더러운 사람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당신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마9:13). 그들의 상처 받은 감정과 양심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 인간답게 살도록 하려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루처의 한 친구, 다른 여인과 간음을 하여 가정을 잃고 말았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다 떠났다.

그는 매일 같이 울었지만 우는 것이 그를 과거의 행복한 가정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의 망가진 삶이 사실이 아니고 꿈이기만을 바랐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그를 다시 만나 그의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악몽을 다시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보이어(David boyer)의 찬송을 들려주었다. 보이어는 회심하기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가수였다. 그는 회심한 뒤 ‘갈보리가 모든 것을 덮네’(Calvary covers it all)라는 찬송가로 유명해졌다.

보이어는 그 노래에서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 모든 죄책감, 모든 추치를 가져가시고 모두 덮어주셨다고 노래한다.

데이빗 보이어의 노래

이 시즌에 이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Calvary covers it all,

My past with its sin and stain;

My guilt and despair

Jesus took on Him there,

And Calvary covers it all.

마귀가 나의 과거를 생각나게 한다.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내 아내를 학대하던 일

그럼에도 그 메시지는 언제나 선명하게 들려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겨 주셨다.
매일 그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온다.
갈보리가 모든 것을 덮었다.

결론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신다는 말이다. 우리의 수치, 나로 인한 것, 타인으로 인한 것, 과거의 아픔도 아신다.
히11:2,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의 저주와 치욕을 멸시하였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수치와 과거의 아픔을 다 책임지겠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서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 교회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 형제/자매의 심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내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은 양심과 감정의 치유는 사랑과 수궁하며 받아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고립되고 혼자 있으면 있을 수록 점점 더 절망감이 커지고 낙담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
어떤 감정의 상처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시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어나 걷기 바란다.